

“공평해 사사로움 없는 지혜 눈으로 미래 열자”

종단협, 신년하례법회 봉행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
대불련 회장 장학금 수여도

국민화합과 희망, 행복의 정유년을 기원하는 불기 2561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가 지난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주관으로 봉행된 신년하례법회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장, 김영주 정각회 부회장이 각각 승가와 재가, 정부를 대표해 부처님 전에 헌화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삼귀의와 한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부처님 전에 3배를 올리며 신년 발원을 다짐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지난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들은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시대의 엄중함 속에서 언제나 공평하여 사사로움 없는 공심(公心)과 원력(願力)을 분별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61년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국민화합과 희망의 정유년을 만들어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신재호 기자

는 지혜의 눈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태종 총무원장 준광스님은 신년인사에서 “불교계 지도자와 사회 각계 지도자들은 부처님 대승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손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재원 중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는데

앞장서고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회에 이어 종단협은 이경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대학생 및 청년포교 활성화에 전력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준광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스님 등 종단협 회원 종단 대표자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국민의 뜻을 헤아려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발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비구니회 종회의원 추천권 재검토”

선관위, 직능대표 전문성 담보 방안도 제안키로

비구니 종회의원을 임의단체인 전국비구니회에서 추천하는 현 제도가 합리적인가. 또 전문성을 담보로 한 직능대표 종회의원 선출에 있어 전문성이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가. 이같은 의문은 어제오늘 제기된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스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종회 종원총법 제개정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적극 가담해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종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제320차 회의를 열고 이날 주요 안건인 은해사 주지 후보 검증 및 산중종회 명부 등을 확정된 뒤 기타안건으로 제

기된 종회의원 선출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선관위는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이 전국비구니회 운영위로부터 추천받아 후보등록을 한 뒤 직능대표 선출위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된 현행 선거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의결했다. 또 직능대표 종회의원의 경우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명기된 종법에 한발 더 들어가 전문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직능과 무관하고 해당 직능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스님이 종회의원이 되는 현실 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종회의원 보궐 2월23일

직선직 2석·직능직 1석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스님)가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일정을 오는 2월23일로 확정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직선직 2석과 직능직 1석 등 총 3석으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31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종회의원 보궐선거는 지홍스님과 주경스님, 범인스님의 사직에 따라 수덕사와 대흥사, 직능대표(사회분야)

등 3석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직선직의 경우 2월23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수덕사와 대흥사에서 각각 선거가 진행된다.

지홍스님(사회)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직능대표의 경우, 2월20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다. 이어 2월20일 오후 3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직능분야 당선인이 확정된다. 입후보자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직능대표의 경우 사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포교종책 변화 이끌 자문기구 새 진용 갖춰

포교·신도종책·포교연구itzt

포교원 3개 위원장 위촉

조계종 포교원(위원장 지홍스님)은 지난 17일 포교종책 자문기구인 ‘포교위원회’와 ‘신도종책위원회’, ‘포교연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를 열고 30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포교위원장 지홍스님은 이날 포교위원장에 심산스님(파라미타정소년연합회장)을, 신도종책위원장에 지현스님(서울 조계사 주지), 포교연구위원장에 해거스님(서울 금강선원 주지)을 각각 위촉하는 등 제4기 포교원 3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위촉식에 이어 포교원 예·결산 보고, 새해 주요 사업 보고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포교위원회와 신도종책위원회, 포교연구위원회는 포교원이 포교 전문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전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스님과 재가



심산스님



지현스님



해거스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된 자문기구다. 특히 이들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교법에 따라 포교위원장과 포교부장, 포교연구실장 등과 함께 ‘포교원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종단의 중요한 포교종책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포교위원장 지홍스님은 위촉장 수여 후 인사말에서 “포교원이 실행혁신운동을 통해 새로운 포교종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포교전문가인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 포교종책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1월18일 중무회의)



성파스님
대구 대관음사



청백스님
울성 광명선원



도봉스님
성남 원정정사



대주스님
부산 대문사



본각스님
고양 금륜사



선랑스님
원주 명천사



정개스님
함양 범인사



정오스님
울산 약사암



호산스님
사천 염불암



진성스님
부산 내소사



자우스님
서울 범교대국제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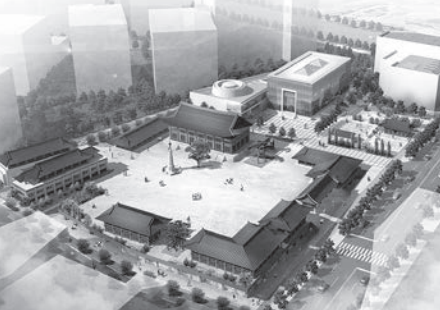
총본산성역화 불사 동참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종흥을 위한 조계종총본산 성역화불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모연금은 조계종 총무원 일대를 장엄하는 여법한 불사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기금 모연 명단

(2017년 1월 4일~2017년 1월 17일)

□기금 :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스님) 3억원 △고양 흥국사(주지 대오스님) 5000만원 △대한 불교조계종 총무원조합 4388만1464원 △제25교구 분사 봉선사(주지 일관스님) 3000만원 △서울 미타사(주지 성현스님) 1000만원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스님) 1000만원 △제13교구 분사 쌍계사(주지 원정스님) 500만원 △부산 연등사(주지 덕륜스님) 405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사무처 100만원 △납기원·정현주 100만원 △성주 대흥사(주지 선철스님) 100만원 △광양 기피사(주지 보문스님) 92만원 △안동 모운사(주지 자항스님) 10만원 △김성자 10만원 △김종애 10만원 △서울 감로사(주지 현수스님) 5만원 △이충규 3만원 △신학녀 3만원 △윤전목 3만원 △나향란 2만원 △김호준 2만원 △김연우 1만원 △김민태 1만원, (총 4억5735만1464원)



※ 모연 후 전화(02-730-6690)를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성역화불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공채 봉은사, 외국어 능력 ‘우대’

도심 속 천년고찰 서울 봉은사가 템플스테이 저변 확대와 진흥에 기여할 교역직 스님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스님 1명이며, 지원 자격은 비구 스님으로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한 해 평균 7000여 명이 봉은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만큼, 영어 및 제2외국어 능력을 가진 스님을 우대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이메일(nochi99@hanmail.net) 또는 우편(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31)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통과한 스님을 대상으로 오는 31일 면접이 실시된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봉은사 홈페이지(www.bongeunsa.org)를 참조하면 된다.

봉은사는 “서울 강남 중심에 위치한 봉은사는 한 해 1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곳인데다 2014년 세계 여행객들이 ‘꼭 가 봐야 할 대한민국 명소’ 3위로 선정된 바 있다”며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원력을 가진 스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설정스님과 함께하는 부탄 불교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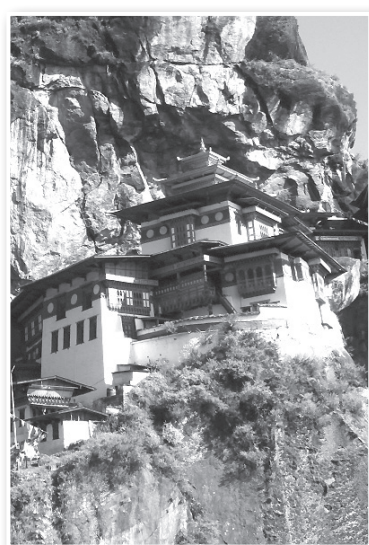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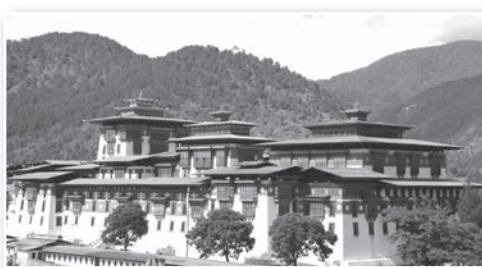
※ 태국 아유타야, 새벽사원순례 포함



‘2017년 승려연수교육’으로 설정스님과 함께하는 부탄불교순례를 3월 17일(금) ~ 3월 24일(금)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수천년 이어진 황금미소의 불교국가 태국과 히말라야에 은둔한 불교왕국 부탄으로!

태국의 옛 수도이자 메콩강 유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적지인 아유타야와 새벽사원, 부탄의 수도 팀푸에 위치한 왕궁사원 타시초중, 17세기 건설된 수행처 체리사원을 참배합니다. 해발 3120m에서 도출라 고개의 108탑과 히말라야산맥의 장관을 감상하며 부탄의 가장 오래된 탁상사원이 있는 파로까지 설정스님과 함께 순례합니다.



- 일 정 : 3월 17일(금) ~ 3월 24일(금)
(음 2.20~27일, 8일간)
- 동 참 금 : 307만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01-0542-481
[예금주 : (주)실크로드여행사]
- 접수마감 : 2월 15일(수)
- 장 소 : 태국-방콕, 아유타야
부탄-팀푸, 푸나카, 파로 등

강의 1. 태국불교의 역사, 문화
강의 2. 부탄불교의 역사, 문화
강의 3. 부탄불교의 현황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주관여행사 :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접수 및 문의(여행사) : Tel 02)720-9600 Fax 02)734-9937